

# 새만금산단, 첫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 전북도, 제30차 새만금위원회서 지정계획 심의·의결... 국내외 투자 활성화 기대

전북도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이 제30차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되었고, 이로써 새만금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인 28일부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산단 1·2·5·6공구를 대상으로 하고,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인 8.1㎢에 달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지역

의 국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경제특구로, 세계각국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새만금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새만금개발청에서는 매립이 진행중인 새만금 국가산단 잔여공구도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그 밖의 새만금지역도 새만금 투자 및 개발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줄어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앞으로도 새만금 투자러시가 지속되어, 새만금 지역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도지사는 "2년간 노력했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 국무회의와 새만금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오늘부터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며, "이는 앞으로 새만금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우리 새만금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는 전북 새만금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학교는 28일 교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라북도환경보건센터 개소 기념 행사를 가졌다.

## 전북도 환경보건센터 개소

### 전북대, 환경부·전북도와 공동 출범 추진

전라북도환경보건센터가 공식 출범했다.

전북대학교는 28일 교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라북도환경보건센터 개소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전라북도환경보건센터 운영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전북대는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보건정책 수행으로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환경부, 전북도와 공동으로 환경보건센터 출범을 추진했다.

전라북도환경보건센터는 국내 환경성질환 발생 증가에 대응하고, 환경 유해인자 노출에 취약한 인구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련 지원을 전담하는 전문 기관이다.

이에 환경 유해인자별 취약지역과 취약 인구를 파악해 환경 유해인자 노출 모니터링과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민들의 환경성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 유해인자 노출에 대한 개인 차원의 위생성 관리 및 건강 행동 유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도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과학적인 기반 마련을 수행하게 된다.

손정우 센터장(전북대 예방의학과)은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실현시키겠다"며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 수립을 위한 민간 협력 체계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센터가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지역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성질환 선제적 예방을 목적으로 전라북도환경보건센터와 전라북도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전라북도 노인복지시설협회, 전라북도 어린이집연합회, 14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의 업무협약식도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 혁신도시 5개년 발전방향 설정·주요전략 구체화

### 전북도,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용역보고회 가져

전북도는 28일 (재)전북연구원 수탁하고 있는 제2차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관련 부서장 등 25여 명이 참석해 지역경제활성화 28개, 정주환경 13개, 지역인재양성 8개, 주변상생 7개, 스마트시티 구축 5개 등 5개 분야별 발전과제 61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법에 의거 향후 5년간(2023~2027) 발전방향을 설정해 도내 전체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수립된 발전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요 전략 및 사업 등도 담고 있다.

이번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자치시대 선도하는 생명경제 허브 구축, 전북혁신도시를 비전으로 설정

했다. △농생명·금융 선도 전북거점, △편리하고 여유로운 대표주거 △세대와 미래를 잇는 혁신인재, △지역과 하나되는 상생도시 △디지털로 관리하는 첨단도시 등 5대 목표도 세웠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분야는 △김제공항부지를 활용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첨단 농기계 성능·안전성 기술개발 실증을 위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혁신융합캠퍼스 구축(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재생 에너지 안전성 평가를 실증하는 신재생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발굴됐다.

정주환경 조성 분야는 △도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고 대규모행사 유치 위한 공연 기반시설인 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 △혁신도시를 둘러보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수변공간 사



업인 물길 산책로 조성 등이다.

지역인재양성 분야는 △도내 우수인재 맞춤형 취업 연계 이직기관·지역대학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역인재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전라북도 공공기관 합동 채용박람회 등이다.

주변상생발전 분야는 △혁신도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 스마트시티 구축분야는 △한국도정보공사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전북형 디지털트윈 사업 14개 시군 확대 등이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발전계획을 중앙부처·국비 확보 및 공모사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1차 종합발전계획 이행평가에서 전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이번 계획도 실행력을 담보하고 지역 자립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 '안전한 세계잼버리 실현'... 조직위, 전기안전공사와 협약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이하 잼버리 조직위)는 28일 잼버리 조직위 전북사무소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전 점검 및 원격점검 인프라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협약에 따라, 세계잼버리 기간 중 참가자들이 이용하는 전기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 관련 축적된 기술과 첨단 장비 등을 활용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해 안전한 잼버리 개최를 위해 행사 기간 중 안전점검 활동을 위한 점검

인력 상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가능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 전기안전대책 본부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시설물의 과부하 및 전기누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쥬가보테크, 쥬비즈커넥트, 쥬에스트론, 에이펙스인텍(쥬), 디지털파워넷(쥬) 등 전기안전공사 주관 후원에서 실시간 원격점검 인프라를 지원하여 원활한 전력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직위 최창행 사무총장은 "2023 새

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의 핵심 요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철저한 안전점검이라며, 여름철 비와 강풍을 감안할 때 안전사고위험이 큰 만큼 임시 전기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개·폐영식 등과 같은 대원들이 밀집된 지역의 전기안전 점검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성만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 본부장은 "최고의 기술력과 첨단 장비를 활용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세계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희망자 추가 모집

전북도가 29일부터 오는 7월 21일까지 '2023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참여 희망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전체 12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앞서 1차로 4동을 선정했다.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은 전북 고유의 전통 한옥 계승 및 활용을 위해 고품격·친환경 주거형태인 전통한옥을 보급하는 정책이다.

지원내용은 도내에서 한옥 주택 신축 시 최대 5,000만원, 등록한옥 및 한옥 마을 내 한옥을 증·개·재축 또는 리

모델링 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해 신축(개·재축 포함)할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용자금(연리 2%)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시·군 한옥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추후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